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통일과 평화’ 주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nse of Reality and Formative Embodiment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 Focusing on the Theme of Reunification and Peace -

오의석 (Eui Seok 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horizon of Christian art by examining the practical examples of contemporary Korean Christian art and its formative embodiment, to explain the roles, responsibilities of Christian art as art in Korean society and culture, and to increase its practical influence. To this end, the study first reviews the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and then examines artists and works that survey and express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 through Christian world view specifically focusing on those dealing with the theme of reunification and peace.

This study utilized methods such as documentary research, appreciation of exhibitions, exploration and interviews, and the works were analyzed and compared. What is commonly found among these artists is that they all have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reinocul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Gospel, whether it be from their growing environments, family history or any other personal experiences of sufferings, and they strive to practically embody this spirit into their art works.

The study finds that the works of Christian artists on the subject of peace and reunification extend the horizon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to art which encompasses the problems of the real world through Christian world view without being bound to specific religious themes. Moreover, they also bears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transformation by formatively embodying the spirit of the Gospel in the realm of art. It is hoped that these works examined by this research would serve as an influential alternative to contemporary

* 대구가톨릭대학교(Daegu Catholic University) 환경조각전공 교수,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ohes@cu.ac.kr

2019년 11월 08일 접수, 12월 03일 최종수정, 12월 04일 게재확정

Christian art in a participatory and practical manner in Korean society today. The work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examples of practical contemporary Christian art in today's Korean society and culture which is hoping for reunification and peace, and there is a need for continuous research as an influential alternative.

Key Words : Christian art, embodiment, sense of reality, reunification, peace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725)

이 논문은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19. 05. 11, 한남대학교) 세계관A분과 발표 논문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현실의식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1. 서론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은 오늘의 한국 사회 속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문화의 한 양상으로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조형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공동체적 연합을 이루며 단체 활동으로 출현한지 반세기가 넘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는 2015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 단체와 공동으로 한국 기독교미술의 50년 전시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발제된 논고들을 종합하여 '한국 기독교 미술 50년'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정리된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식과 실천의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서 현실의식과 실천적 사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외연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기독교 미술이 특정한 종교미술의 한계를 넘어서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실천적 작품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발견한다. 그 이유를 한국기독교의 신학적

성향,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론의 성격, 기독교 작가들의 신앙의식과 세계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인 한국교회와 복음주의의 영향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세대의 작가들은 사회의 변혁보다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크고, 작업의 주된 경향이 말씀의 시각적 증언과 선포, 경건과 영성적 삶의 추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명 등은 기독교미술의 주된 범주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현대기독교 미술은 일상과 현실, 역사와 환경, 정치와 국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혁적 노력을 보여주는 경향의 작품들을 기독교 미술의 영역 밖의 미술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진보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환경신학, 생태신학, 통일신학, 여성신학 등을 통해서 이미 실천과 참여적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으나 이와 같은 신학적 함의가 현대 기독교미술의 양식 속에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독교 미술을 종교적 주제와 교회 안의 미술로 한정하고 제한해 버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실의식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작품을 기독교미술의 범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작가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그의 명저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전쟁과 평화, 환경, 인권, 실업, 빈곤, 경제적 불균형, 인종과 다문화사회, 낙태와 안락사, 생명공학, 페미니즘, 동성애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정옥배, 2011: 5-6). 범위를 좁혀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해답을 제시한 차정식 교수는 ‘예수, 한국 사회에 답하다’에서 정치, 세대갈등, 양극화, 연고주의, 가정의 해체, 자살, 생태, 다문화 사회 등 구체적인 문제로 23가지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차정식, 2012: 6-7). 본 논문에서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실천의 주제로 통일과 평화를 다룬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환경오염과 생태,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노인문제, 위안부, 동물실험과 세월호 등 다양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은 차기의 연구과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연구의 대상들을 찾아 선정하고 문헌 자료의 연구와 함께 작품 전시의 관람과 작업실 답사. 작가의 노트와 대담 기록 등을 통해서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경험, 세계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들이 기독교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에서 이해

하고, 기독교미술로서의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현실인식의 체현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 미술의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고 풍성해 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

1.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단체로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와 한국 미술인선교회, 지난 2018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아트미션이 있다. 이 세 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을 정리하는 책자와 전시를 2015년에 가진 바 있다. 그 책자에서 현실의식을 보여주는 작가와 작품으로는 박수근의 <시장 사람들>, 이연호의 <이촌동 풍경>,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작가로 김복동의 <노인-한국사>와 연구자의 작품 <20세기의 얼룩진 지구를 회상함> 정도를 찾을 수 있다¹⁾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오랜 역사를 가진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이며, 한국미술인선교회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미술선교적인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아트미션 단체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출발하여 기독교미술론의 정립을 위한 포럼을 매년 가지면서 그 결과들을 책자로 발행하여 왔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아트비전>을 들 수 있고, 대형교회들 안에서 활동하는 몇 개의 미술선교그룹이 있으며, 대구, 부산, 광주 등의 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기독교미술작가들의 단체가 있는데 연구자가

1)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제1부에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이 전개를 다루는 논고가 실려 있다. 서성록의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어제와 오늘’, 장준석의 ‘한국화와 기독교미술’ 김이순 ‘복음적 실천으로서의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 조각의 몇 가지 양상’, 송신일 ‘한국 기독교서예의 전개와 양상’ 4편의 논고들에 소개되는 회화 조각 작품 총 46점 가운데 사회적 현실성을 담아내는 작품으로는 박수근의 풍경 ‘시장 사람들’ 1점을 어렵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미술 50년 전시 도록에 실린 192점의 작품 가운데서도 현실 상황 속의 인물을 다룬 작품으로는 남은주 작 ‘케냐 아이들’ 1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스티벌의 도록에서도 2004년 153점의 작품 중 본 논문에서 다루는 김복동의 ‘노인-한국사’ 1점과 2006년, 238명의 전시 참여 작가 중 이승현의 ‘아침의 달’ 정원주의 ‘전쟁과 평화’ 2점이 발견되는데 이 전쟁과 평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는 전원의 풍경으로 작품의 명제와 현실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속한 대구기독교미술선교협회의 경우도 현실의식을 나타내는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작품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대구지역과 교회가 가진 보수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에서 2007년 발간된 이론분과 회원의 논문집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II’를 발간하면서 한국 기독교미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책에서 미술평론가 서성록은 현대 기독교미술의 작품 성향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회원들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한다. 1)성경의 테마, 2)신앙고백, 3)은혜의 증거, 4)자연, 하나님의 피조세계, 5)미의 질서로 작가의 작품을 정리하고 있다(서성록, 2007: 18-26). 그의 구분과 정리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 기독교미술’에 실린 ‘구속(救贖)의 예술’ 논고에서도 ‘성경의 테마’와 ‘신앙고백’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사한 주제로 ‘일상의 은혜와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구분하여 작가군을 분류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인 제언에 이르러 기독교문화와 예술의 구속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독교 미술이 항상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일 수 없고 낙관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다룬다. 힐러리 브랜드(Hilary Brand)와 아드리엔느 채플린(Adrienne Chaplin)이 <예술과 영혼>에서 언급한 “결코 천년만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조언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만일 기독교 예술가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빌4:8)란 성경구절을 회화적으로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최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섬뜩한 재현이 될 것이다. 전쟁의 추악성을 고백한다든지 인간의 죄악성을 폭로한다든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뿐만 아니라 부패와 무질서를 묘사하는 데에도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장면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단면만을 보는 험애한 시각일 뿐이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한다.”(롬 8: 22)고 말한다. 만일 기독교미술가들이 다른 한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서성록, 2017: 51).

서성록의 이해와 제언에서 일찍이 피카소(P. Picasso)의 작품 게르니카(Guernica)를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회화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미술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 상황의 실존을 다룰 수 있다는 폴 티리히(Paul Tillich)의 말을 상기해 볼 수 있다(김경수, 1991: 81). 그리고 오스 기니스(Os Guinness)가 말한 ‘선지자적 반시대성’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도전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김형원, 2016: 29).

앞서 언급한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책자의 논고에서 최태연 교수는 기독교 회화의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나 십자가 같은 성경의 내용이나 상징을 다루는 성화 작품, 둘째, 한국의 신앙인이나 순교자를 다루는 작품, 셋째, 기독교 신앙의 관점(세계관)에서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으로 구분하면서 한국의 기독교회화의 대다수가 첫 번째 범주에 속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세 번째 범주인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기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작품을 ‘한국의 기독교 회화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최태연, 2007: 75).

2. 해외 기독교 미술의 현실인식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책자의 제2부에 실린 기독교미술 논고 가운데는 인도,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 아시아의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서양의 현대 기독교 미술을 소개하는 두 편의 논고를 함께 실고 있는데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논고에 소개되고 있는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주로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 한정희 교수는 인도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들의 작품 특성으로 자국의 의상과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작가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의 이야기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중국의 전통복장이나 자연 풍물 등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일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일본적인 것을 살리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 한정희 교수는 논고의 결론에서 각국의 전통과 토속성을 드러내는 토착화된 미술의 단계에서 벗어나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성찰이나 영성이 들어 있는 작품의 출현을 제안하고 있다(한정희, 2015: 173). 아시아권의 작가들이 자신의 지역적인 문화 전통을 담아내는 토착화의 시도에서도 현실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조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 현실인식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까지 서양의 현대 기독교 미술을 다루는 손수연 교수의 논고는 서양의 가톨릭 작가들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들과 작품세계를 연구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 작가들은 작품

속에 그리스도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구원을 추구하고 세계의 회복을 염원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현대미술에서 '정신성'의 표현은 종교화와의 관련성을 지속하여 초월성과 숭고의 의미를 강조하는 추상표현주의, 색면 회화 등, 미술의 가능성을 종교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예술가들의 노력을 예술과 종교의 접합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로 절대성을 부정하는 철학적 사조가 기독교의 위치를 위협하지만 예술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형화된 양식을 규정하지 않아서 기독교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손수연, 2015: 210).

저자가 소개하는 작품들도 명제를 보면 대부분 기독교적 주제를 벗어나지 않은 작품들이다. 그런 가운데 현실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은 영국 조각가 안토니 카로(Anthony Caro)의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 '최후의 심판'과 로저 와그너(Roger Wagner)의 작품 '메노라'를 들 수 있다. 카로의 작품 최후의 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의 잔악함에 대해 고발하고 있고, 로저 와그너의 '메노라'는 배경에 등장하는 핵융합발전소의 거대한 굴뚝과 연기에서 20세기 산업적인 집단 학살과 공허한 비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연 교수는 포스트모던 기독교 회화를 다룬 한 논고에서 로저 와그너의 '메노라' 작품에 대해서 거대한 핵발전소의 일곱 굴뚝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동시에 핵오염에 의한 종말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최태연, 2009: 142). 이처럼 현대 서양의 기독교 미술에 있어서도 현실에 대한 인식을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작품의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일과 평화라는 주제는 분단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작업하는 한국의 기독교 작가들에게 보다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작가 중 소수의 작가들이 이러한 현실인식과 변혁을 위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Ⅲ.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에 체현된 현실인식

1. 평화와 통일의 프로레고메나(Prolegomena)

기독교 미술 작가로서 기독교 미술단체에 속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자적인 개인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경우 작품세계의 발전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전과 퍼포먼스를 통해 오랜 기간 통일 문제에 친착해온 작가로 허진권이 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지속해 온 ILUK의 현장 전시 및 퍼포먼스는 작가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조형적으로 체현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헌신적 조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ILUK은 'I Love Unification of Korea'의 첫 자를 가지고 만든 고유 명사로, 한국어 읽기로는 '이룩'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작가는 '통일 염원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다. 2015년 8월, 대전 이응노미술관 광장에서 벌인 현장전시와 퍼포먼스(Figure 1)를 시작으로 2016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Figure 2), 2017년에는 과주 임진각에서(Figure 3), 2018년 천안 리각갤러리 초대전시로 <평화와 통일의 프로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를, 2019년 대전시립미술관 광장으로 지경을 넓히며 이어가고 있다. 물론 통일문제는 기독교 미술인 작가들보다도 민족미술 진영의 작가들에게서 더욱 부각되어 다루는 주제인데 허진권의 경우는 기독교 작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화와 통일의 프로레고메나 - 네 신을 벗으라>에서 작가는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차원으로 '예술 하는 순교자'로서의 소명의식이 발현되면서 발전하고 있는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밝히고 있다. 허진권이 어떻게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고 작품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작가의 글을 참고해 보면 그가 자란 시대와 지역에서 비롯한 역사의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그가 낳고 자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작품이 탄생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기 전, 시골보다 더 낙후된 조그만 섬에서 자라며 보고 배우고 느꼈고, 이것들이 내 예술의 모토가 됐다. 특히 가난, 노름, 젊은이들의 폭력, 게으른 어른들, 상이용사를 가장한 거지와 용천배기 등등을 보는 것은 무척 두려웠다. 맑고 고요한 하늘과 파란 바다, 그러다가도 폭풍우 몰아치고,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필자는 어린 시절 이렇게 폭력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에서 자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장배경이 작품에 있어서 현상 보다는 본질, 시각적인 장식성 보다는 역사의식을 가진 실험을 하는 작가로 성장하게 됐다(허진권, 작가의 노트 중에서).



[Figure 1] Performance in Lee Eung Ro Museum - Scene of ILUK



[Figure 2] Scene of ILUK- Daehan Gate, Gwanghwamoon Square.

작가가 주로 광복절과 삼일절을 맞으면서 전시를 가지는 것은 그의 역사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허진권 작가가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조형체현 작업을 지속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작가는 2004년에 목원대학교에 신설된 기독교미술과의 주임교수로서의 자리가 갖는 정체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작가에 의하면 2006년부터 ‘점’을 주된 요소로 하는 작업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사랑’으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면서 ‘작품에 찍힌 하나하나의 점들이 파장을 일으켜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비롯된 작업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사랑, 평화, 자유, 구원, 기쁨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평화를 실현하고 싶었으며 결국 평화는 작가에게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고 말한다(Figure 4).

여기서 허진권 작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를 그의 종교적 신념과 역사의식에 비친 사회현상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술가로서 고민한 결과 ‘통일’을 가장 절실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통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진다. 대전일보사와의 협력으로 신문에 필자의 작품을 알려져 기사가 되고 그 기사가 다시 작품이 되는 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시도를 한다.²⁾ 즉 언론이 작품이 되고 그 작

2) 대전일보(2014년 6월 24일자)에 제1회를 게재 시작하여 2015년 12월 29일(화)까지 주 화요일자 1면에

품이 다시 언론으로 변모하는 순환 자체를 한 점의 작품으로 보는 개념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Figure 3] Scene of ILUK- mjangak



[Figure 4] Performance for Peace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통일 염원 프로젝트 -ILUK 운동’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더 많은 작가들과 무용가, 음악가, 후원자들로 구성된 토탈 아트로서 전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대형 퍼포먼스를 구상한다.

미술평론가 김병수는 허진권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본능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즉 분단이라는 현실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개인의 삶은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한국인이라는 특수한 개인의 확장으로서 우리의 상황은 통일을 바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염원은 생존의 보장과 지속을 위한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허진권의 평화에 대한 갈구 역시 생존에 대한 보증의 요구로 해석한다(김병수, 2014: 105).

반면에 2018년 리각미술관의 기획초대전으로 열린 ‘평화와 통일의 프롤레고메나-네 신을 벗으라’(Figure 5)는 허진권 작가의 기독교 신앙과 정신이 가장 잘 체현된 전시로서 전시를 기획한 김나영 수석큐레이터는 ‘믿음으로 예술하는 순교자’라는 제하의 평문에서 리각미술관에서 선보이는 허진권의 설치전이 오늘날 예술과 예술가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본다. 그리고 작가의 소명의식 특히 전 지구적 생명의 존립을 위해 요구되는 인간과 인간의 화합이라는 보편적인 이슈를 지향하면서,

총 77회를 연계함으로 매체를 통한 대중적 소통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아젠다로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의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김나영, 2018: 2).

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록으로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은 세속의 더러움을 벗는 행위이자 거룩한 소명을 위해 내려놓아야 하는 모세의 옛 자아일 것이다. 허진권은 2018년 3월 10일자 작가의 심경을 기록한 ‘작가의 노트’에서 욕망과 위선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찬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적용하기로 다시 한 번 결단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작업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술 하는 순교자라는 표현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Figure 5] Prologema for Peace and Reunification - Take off your shoes

연구자는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그의 순교적 열정을 담아내는 체현의 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허진권에게 있어서 퍼포먼스는 ‘삶이 곧 예술이다’라는 모토 아래 시도된 1981년의 첫 개인전과 1982년의 ‘결혼현장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적 삶이 하나의 작품으로 체현되어 나타날 때 그 작품은 일탈적 행위로 보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의 몇 도시와 제주도를 경유하는 순회여행 등으로 일생의 중대사인 결혼식을 작품화하기 위해서 작가가 감내해야 할 어려움과 희생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오랜 행위예술의 뿌리를 갖는 ILLUK 작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작가는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라고 답한다. 과연 그가 말하고 꿈꾸는 통일의 날이 언제일까 하는 물음과 함께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한다. 통일의 결과보다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이기에 통일을 결과로 바라보기보다는 통일 자체를 과정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분단의 철폐가 전면적으로

견고하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체제로 완전히 연합하는 단계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고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태를 부분적인 과정적 통일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작가가 염원하고 꿈꾸는 통일로 가는 길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연합과 일체를 이루기 이전이라도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면 작가의 염원은 이미 실현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작가들의 작업 가운데서 이처럼 통일을 점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부분적인 성취의 현장을 누리는 작업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부드러운 장벽

이용배는 2018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수애노갤러리에서 <부드러운 장벽> 설치전을 가졌다. 그 작업과 전시의 연장선에서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민통선 안에 위치한 연강갤러리에서 설치작품전을 연다. 작가는 장방현의 긴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장벽을 세운다. 철망처럼 사선들이 교차된 투명 비닐을 일정 간격의 철골 지지대에 걸어서 긴 장막을 설치한 것이다. 투명한 연질의 비닐 커튼이라 할 수 있기에 장벽을 밀치게 되면 자유롭게 장벽을 지나서 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Figure 6).



[Figure 6] Soft Barrier



[Figure 7] Communité, 1998

오랫동안 금속파이프를 연결하는 배관작업으로 일관해 오던 작가에게 이처럼 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용배의 작업에서 한반도를 가로지른 휴전선 철책을 연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

언의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져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비무장지대내의 전방감시초소(GP) 철거 등이 떠오르며 장벽을 걷기 위한 노력과 걷힌 이후의 소통을 생각하게 된다. 그의 작업이 한반도 시대상황에 대한 은유라면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작업에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외부적 정치 상황의 여건과 함께 작가에게는 분단으로 인한 아픈 가족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작가에게 작업의 내적인 동기로 작동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작가의 아버지는 실향민이 되었다. 서울로 유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에 전쟁이 터졌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전쟁 전에 남한에 속해 있었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 편입됨으로써 고향을 잃게 된 황해남도 연안 태생의 아버지는 실향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평생 끝이질 않았다고 한다. 작가는 분단과 실향, 이산의 아픈 유산을 물려받아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소원은 곧 작가의 소원으로 이어졌고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투명하고 소통 가능한 부드러운 장벽의 작품설치로 체현되어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

연구자는 여기서 이웅배의 장벽 작업을 그의 지난 작품들과 연관하여 설명해야할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미술평론가 최태만은 작가의 작품 <고랑포리-도밀리>가 단절되지 않은 채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의 조형성에 있어서 이웅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금속파이프 작업을 떠올리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웅배가 그 동안 추구해왔던 유기적인 금속파이프 작업에서 표면의 촉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조각에 접촉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고 조각에 올라타거나 매달림으로써 작품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작가의 의도가 장벽 작업에서도 경계 넘나들기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최태만, 2019: 2). 연구자는 최태만의 조형적 측면에서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것은 이웅배의 배관작업 꼬미노떼(Communaté)(Figure 7) 연작에 나타나는 공동체성이다. 작가의 삶과 작업은 작품의 명제가 의미하는 것처럼 공동체성을 추구해왔고 부드러운 장벽에서도 여전히 공동체성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불어 제목 ‘꼬미노떼’ 우리말 로 공동체를 뜻할 가진 그의 기둥에는 크고 작은 단위들이 서로를 받치며 세워 가는 연합의 정신이 있습니다. 팽창과 수축의 반복이 다양한 굴곡과 함께 유기적 불륨을 형성합니다. 기둥들은 중심을 잃지 않을 만큼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웃한 기둥에 대해 상호 의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기둥들 사이에 만들어진 소통의 공간에 머물게 합니다(오의석, 2003: 163).

이와 같이 이웅배의 꼬미노메 연작이 담고 있는 접촉과 소통, 연합의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이 장벽설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이어진다. ‘부드러운 장벽 설치’ 작품전은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견고하고 접촉하고 소통하며 경계를 넘나들며 연합하는 민족 공동체성의 회복이란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작가의 소망이 체현된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철조망 오브제의 연작

1980년대 ‘연구자가 속해 있던 그룹 ‘마루조각회’는 작가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창작을 중시하는 청년작가들의 신생 그룹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분단’이란 주제의 테마 기획전을 가진 적이 있다. 청년조각가들의 그룹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미술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아야 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최류탄 냄새 속에서 미술을 배워야 했던 70년대의 대학시절을 보낸 청년 조각가로서 연구자는 당시를 아래와 같이 회상하면서 동년배 작가들의 마음을 대변한 적이 있다.

어떻게 점, 선, 면, 양과 괴, 공간, 구조 이런 조형의 순수성만을 붙잡고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지가 우리 눈에는 신기하기만 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청각과 시각의 장애자가 아니라며 아마 신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린 학교를 마친 후 민중작가의 간판을 내걸든 내걸지 않았던 민중 친화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단, 광주의 이야기를 꺼내는 적극성으로부터 적어도 환경과 전통, 지역성의 이야기를 붙들지 않고는 의식의 평안이 없었던 것이다(오의석, 2003: 58).

청년작가 그룹의 한 멤버로서 과제처럼 주어졌던 ‘분단’ 테마전에서 연구자는 최전방 철책연대에서 작전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2년여 넘게 하염없이 바라본 휴전선 철책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손의 연작이라는 부조 작품 연작 6점을 빚어 출품한다 [Figure 8]. 철조망과 두 손, 팔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으로써 더러는 양 손이 철조망에 의해서 조여진 듯하고, 더러는 철조망을 힘 있게 걷어내는 듯도 한 부조 연작들이었다. 3년 가까운 젊음의 세월을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보낸 최전방 고지의 삶의 흔적이 철조망과 손의 구성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이어서 철조망을 한 가족의 얼굴과 병치 구성한 작품 ‘일가(一家)’라는 제명의 작품도 당시에 제작되었다. 한국미술협회전

출품작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작품 ‘일가’는 이산가족의 아픔과 재회의 소망을 체현해 본 작품으로 부조로 표현된 철조망을 배경으로 한 집안 삼대의 인물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다[Figure 9].



[Figure 8] Hands Series Works, Theme Exhibition by Maru Group,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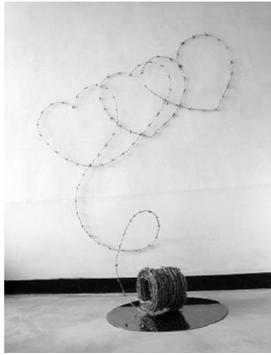
[Figure 9] A Family



[Figure 10] A Lamb,
대구성시화전, 2017

그리고 약 32년이 지난 후 연구자의 철조망 테마는 재현이 아닌 실제 오브제의 차용과 변용 제시로 작업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 2017년 작 ‘어린양’(대구성시화전 출품작)은 흙으로 소성된 도조 어린양 형상에 철조망을 칭칭 감아서 동여맨 작품이다 [Figure 10]. 어린양을 감고 있는 철조망을 세상의 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분명히 매우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 동시에 연구자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에 고조된 한반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운신하기 어려운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린양의 형상에 투사하고자 하였다. 수십 년 전 개인의 체험 속에서 경험된 철조망이 작가의 양손을 옥죄는 것으로 출현되었고 그것을 걷어내려는 손짓의 작품으로 나타난 반면에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서는 한반도를 억압하는 외세의 압력과 세상의 죄악된 힘으로가

지 철조망을 상징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Figure 11] Drawing-Peace
2017, 제41회 경북조각회전



[Figure 12] W-Story Monument, 2017

작품 <Drawing-평화 2017>은 제41회 경북조각회전 출품작으로 바다에 던져진 철조망 톨의 덩어리에서 풀려나오는 철조망의 선으로 벽면에 하트의 형태를 중첩하며 그려가는 설치 작품이다[Figure 11]. 철조망의 철선은 일정간격으로 물고 있는 가시는 접근과 소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작업 중에도 가시는 작가의 손을 찌르고 아픔을 주게 된다. 연구자는 일련의 철조망 작업에서 수없이 찢리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작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태는 심장과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형태이다.

한 NGO 단체의 요청에 의해 특정 장소에 설치된 작은 모뉴먼트(W-story, 양평) 프로젝트는 세 개의 앵글 파이프가 하나로 만나는 상부의 점점에 철조망 하트가 중첩되어 걸린다. 그리고 지면에 박혀있는 자연석들은 철조망이 십자로 교차하면서 감싸는 구조를 가진다[Figure 12].

철조망을 부조로 표현한 작품에서부터 오브제로 직접 차용한 작업까지 30년 넘는 작업을 돌아보면서 연구자는 이제 철조망 작업을 그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분단의 철조망이 걷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 날에는 더 이상 작가의 작품에 철조망이 등장할 이유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작가의 손이 철조망 가시에 찢리는 일도 더는 없을 것이다. 작품을 낳은 상황의

해결과 함께 작업도 종료되어야 하고 작품 세계가 명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통일을 주제로 다루는 작업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허진권작가의 경우도 그의 희생적 퍼포먼스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 것인가에 대해 통일의 날까지로 답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가능하면 영속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 원하는 것이 작가로서 일반적인 바람일 것인데 그럼에도 문제 상황의 해결과 함께 작품의 존재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가능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시대를 사는 한 작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분단의 고통을 작업으로 체현하면서 함께 아파했음에 대한 증언으로서 고통스런 철조망의 연작이나 희생적인 퍼포먼스가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4. 전쟁의 이미지로 그리는 평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계에서 충실한 사실적 표현으로 풍경과 인물을 다루어온 김복동 작가는 한때 노인의 모습을 즐겨 다루던 시기가 있었고, 연구자는 작가의 작품세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문과 단상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다.³⁾ 왜냐하면 노인이 모습은 우리시대 대부분 화가들의 관심 밖에 있는데 반하여 김복동의 그림은 시대에 대한 도발이며 미술계와 작가들의 세계에 대한 역행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노인 소외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 작가들의 화폭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며 모든 인생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 젊은 작가의 눈에 비친 그림 속의 노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노인은 어두워져가는 도심을 배경으로 딱딱한 벤치에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멧과 여유를 가꾸어 온 강골의 인상이지만 마음은 매우 무거워 보입니다. 지나온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여기 이 자리는 마땅한 자리가 아니라는 듯한 표정입니다 -- 마치 주인 없는 빈 집 같고 그 집을 지키는 마른 고목과도 같은 그 분들이 모습에서 떨지 않은 장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미리 그려볼 수 있습니다(오의석, 2006: 33).

3) 저서 <예수 안에서 본 미술>에서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로고스와 이미지, 그 접점에 서다>에서 '소외와 단절의 벽을 넘어서' 로 게재 되었음.

연구자는 김복동의 고향과 노인 그림 연작들을 ‘소외와 단절의 벽을 넘어서기’로 해석하며 다루었는데 작가는 <노인-한국사> 전시에서 그가 즐겨 다루어 온 노인들의 모습 배경에 6.25 전쟁의 정경을 합성한 작품들을 통해서 소외와 단절의 벽을 시골과 노인의 소외라는 한계에서 민족의 분단 문제로 확장해 보여준다. 그림 속의 노인들은 그림 앞에선 우리에게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만 같다. 그 노인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어그러졌으며 오늘 자신의 모습 속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노인의 모습과 표정은 증언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그림 속의 노인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오의석, 2006: 129).



[Figure13] A Old man-Korean
History 2000



[Figure 14] A Old man-Korean
History, 2001

김복동의 작품은 먼저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전쟁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묻고 있다. 전쟁기념관이나 학살기념관을 세우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은 전쟁의 참혹한 진상을 알리고 다시금 그러한 비극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와 같이 김복동은 <노인-한국사> 그림도 우리에게 전쟁 역사의 장면을 기록해 냄으로써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김복동의 이와 같은 그림 배경에는 작가의 특별한 가족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

가 자신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분단으로 인한 이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희생된 가족과 그로 인한 상처가 결국 이러한 작업이 나오게 된 동인이 되고 있다. 작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전쟁의 아픈 상처로 인한 아직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Figure15] Old man
Praying-Korean History,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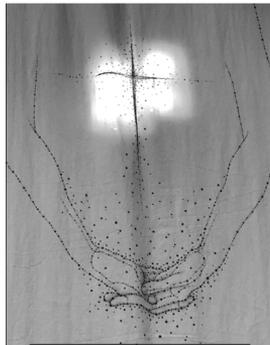
[Figure 16] Restore This Land,
2001

김복동 작가가 그림을 통해서 너희가 전쟁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뿐 아니라 대립을 조장하고 전쟁을 선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던지고 있는 질문일 수 있다. 정말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줌으로써 호전적인 이들의 의식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복동의 전쟁 이미지 그림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영웅에 대한 예찬이 아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복동의 전쟁 이미지 작품은 역사적 상황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회복의 열망을 담은 기도의 모습을 담은 데로 발전한다. 작품 <간구하는 노인>과 <이 땅 고쳐 주소서>가 좋은 예로, 작가의 평화에 대한 회구와 통일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두 작품에는 기도하는 여성으로 백발의 노인이 화면의 중앙에 자리한다. 주목할 것은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의 얼굴과 수난 당하는 모습이 후면과 측면에 합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여기서 작가가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이 복음의 실천적 차원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5. 통일 비전과 복음의 실천

2007년 시작된 통일비전캠프에 매년 작품을 설치하며 참여해 온 심정아 작가의 활동과 작품은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적 이해와 접근에 기초한다. 통일비전캠프는 탈북민들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손님들, 또는 ‘먼저 온 통일의 기회’라고 보며 진정한 통일은 이념이나 체제의 통일이기 보다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미움과 증오, 불신의 상흔들을 씻어내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 됨의 회복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 됨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고 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작가는 캠프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누어 왔다.



[Figure 17] Installation
Work in Reunification
Vision Camp



[Figure 18] Crown of
Thorns - Installation Work
in Reunification Vision
Camp Window

이와 같이 회복된 작은 통일의 현장에 크리스천 예술가로서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작업이 <Stigmata> 연작들이다. ‘Stigmata’란 성흔(Holy scar), 즉 거룩한 상처를 뜻하는 단어로 십자가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뜻한다. 작가의 작업은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로 형질 천을 태워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린다(Figure 17). 그리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에 설치하여서 상처의 흔적들을 아름다운 빛의 흔적으로 다가오도록 함으로써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은혜와 함께 고통을 통과한 후에 얻는 아름다움의 세계로 감상자들을 이끌고 있다(Figure18).

인두로 천을 태워가며 선을 새겨가는 작업은 작가에게 긴 시간의 고독과 기다림과 아픔을 요구한다. 그 시간은 불로 태워진 자국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새겨진 상흔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며 작품을 예배의 공간에 걸고 태운 자국에 빛이 통과 하도록 해 주어야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 아픈 상흔의 선들이 빛의 선으로 바뀌지는 것을 보면서 작가는 치유와 회복과 부활, 그리고 영광을 묵상하게 된다고 말한다(서성록, 2013: 193).

심정아 작가는 Stigmata 연작을 통일 비전캠프의 집회 장소에 설치한다. 그 이유는 그 곳에서 만난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여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인권유린을 경험한 하였는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미리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Figure 19). 심정아의 설치 작품 앞에서 예배하며 성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습에서 그의 작품은 통일비전캠프를 복음의 실천적 현장으로 인식하게 한다(Figure 20).



[Figure 19] One and Only,
Installation Work in
Reunification Vision Camp
Meeting Hall



[Figure 20]
Installation Work
and People waiting
for Sacrament

작가에게는 탈북민들 뿐만이 아니라 세월호를 주제로 한 개인전 등을 통해 삶의 현실 곳곳에 자리한 상흔들을 응시하게 된 전기가 있었는데, 2007년 작가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과 시련이었다고 밝힌다. ‘세 번의 수술을 통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느끼게 진행되는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였고 몸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흔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의 작가의 삶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공황의 마음을 품게 되었으며 삶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상흔들을 응시하게 되었고 그것을 Stigmata 연작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작가의 이러한 공황의 마음은 탈북민을 향한다 그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 세월호 희생 가족 등, 역사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동물실험, 자연의 소리 담기 등을 통해서 자연 생태계로까지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정아 작가의 작업은 통일만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미술이 실천적 복음의 정신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줌으로 기독교 미술의 확장된 지평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심정아 작가는 실천적인 현실의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특히 통일의 비전은 복음의 실천과 그 결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작업으로 분명히 보여준다. 앞에서 다룬 네 작가의 경우도 역시 동일한 신앙고백과 믿음의 눈으로 분단 시대를 사는 동시대의 작가들이지만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는 작업의 동인에는 차이가 있고 조형적 체현의 양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허진권 작가의 경우 통일과 평화를 작업의 테마로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작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못짓의 퍼포먼스를 주된 양식으로 활용한다. 반면에 조각가 이용배는 대형 설치작품 안으로 관객을 유도하고 참여 시킨다. 벽을 넘나들게 행위를 통해 분단의 벽에 대한 체험적 인식을 갖게 하고 작은 소통의 공간과 공동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연구자의 경우 오랜 시간 철조망이란 분단의 장애물 오브제에 주목하면서 릴리프와 설치 등 다양한 조형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상의 작가들이 전통적인 조형의 양식에 갇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실험을 통해서도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넓히는 반면에 김복동은 전형적인 평면 회화의 틀 안에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을 담아냄으로 평화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다.

IV. 결론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정리된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의식을 드러내는 실천과 참여적인 작품은 많지 않다. 보수적인 교회와 신학의 배경을 가진 복음적인 크리스천 작가들은 기독교적 주제를 다루거나 전도와 선교적인 작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미술 이론가들은 기독교미술을 특정한 종교미술의 범주 안으로 가두기보다는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조망하고 표현할 것을 희망하며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 미술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조망하며 다루어야 할 현실의 영역은 매우 크고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주로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다룬 기독교 미술 작가들의 실천적이고 참여적 작품 속에 현실의식이 어떻게 체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것은 작가들 모두 자신의 몸이나 가정환경, 삶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상처, 아픔의 경험 속에서 복음이 갖는 화해와 통일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작품 속에 체현하여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장기 환경이나 가정적 배경, 또는 청년기 군복무 등의 앞선 경험으로부터 이미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식이 작가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고 특정한 시대적 상황 변화와 필요에 의해서 작품 속에 체현되고 대외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이다.

허진권 작가는 어린 시절 자란 섬마을의 환경과 기독교미술 전공학과의 책임자로서의 정체성이 작품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는 평화와 통일을 민족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표현 형식의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다. 조각가 이용배의 경우는 실향의 아픔을 가진 가족의 역사적 배경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유롭게 오고 가며 소통이 가능한 부드러운 장벽의 제시를 통해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일에 대한 희망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연구자는 청년기의 오랜 기간 동안 최전방 철책을 품고 지낸 경험 속에서 각인된 철조망을 오 브제로 활용하면서 인물의 손과 얼굴에 병치시킨 부조와 동물, 상징 이미지와 함성하고 변용한다. 김복동 화가의 작업 역시 어린 시절 가정사의 배경이 동인이 되어 오늘의 현실 속에 상존하는 노인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전쟁의 이미지를 다루면서 평화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있다. 심정아 작가는 개인적으로 겪은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분단으로 인해 고난 받는 탈북민과 함께 하게 되었고 복음을 체현한 작업

들로 통일비전 캠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상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업이 민족미술 진영이나 반전주의 운동가의 시각과 차이를 가지는 것은 복음의 실천적 체현으로 나타나고 해석된다는 점이다. 소명, 공동체, 연합, 기원, 긍휼과 같은 기독교 정신이 작품 속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미술의 범주 안에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미술이 오직 기독교적 주제와 교회의 미술 안에서 제한되는 것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의 역사와 영역을 종교적 범위 안으로만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이 되고 만다. 비록 소수의 작가들이지만 통일과 평화의 주제를 다룬 작가들의 작품세계는 현대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이 오늘의 한국 사회 안에서 미술로서 가지는 사회변혁적 책무를 감당하며 행동하는 예술로서의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영향력을 가지며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Wolterstorff, Nicholas (1980). *Art in Ac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 김경수 역. (1991). *문화의 神學*, Tillich Paul (1959). *Theology of Cultur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유리·오운성 역. (2004). *예술과 영혼*, Hilary brand & Adrienne Chaplin (2001). *Art and Soul*. 서울: IVP.
- 김진선 역. (2002). *예술과 성경*, Schaeffer F. A (1973). *Art & the Bible*. 서울: IVP.
- 김현수 역. (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Rookmaaker, H. R. (1978). *Art need no justification*. 서울 : IVP.
- 김형원 역. (2016). *선지자적 반시대성*, Os Guinness, *Prophetic Untimeliness*. 서울: 이레서원
- 정옥배 역. (2011). *현대 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John R. W. Stott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서울: IVP.
-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Kim, Y. H. (1992) *Korean Christian Culture Theology*. Sungkang Culture Press.]
- 김이순 (2015). 복음적 실천으로서의 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 조각의 몇 가지 양상.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Kim, E. S. (2015). *Art as Evangelical Practice : Some Aspects of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Sculpture.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Art for 50 years*,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 손수연 (2015). 서양 현대 기독교미술.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Shon, S. Y. (2015). *Contemporary Western Christian Art.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 미술사랑.
- [Seo, S. R. (2003). *Art & Christ, Dreaming Hand- Korean Christian Artists*. Misulsarang Press.]
- _____ (2007). 크리스천 미술 리포트.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II**,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_____ (2007). *Christian Art Report. The Flow of Korean Christian Art Pro Rege II*,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 _____ (2013). **예술과 영성**. 서울: 예서원.

- [____ (2013). *Art and Spirituality*. Yeseowon.]
- ____ (2015).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____ (2015). *Korean Christian Art, Past and Today.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 ____ (2017). **구속(救贖)의 예술.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기독교미술**. 서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____ (2017). *Art of Redemption. The Quincentenary of Reformation and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 오의석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18호, 대구: CUP.
- [Oh, E. S. (1993). Contemporary Christian Art and World view. *The Journal of Joins*, 19(2), 110-127.]
- ____ (2003). **말씀과 형상/ 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 [____ (2003). *LOGOS and IMAGE*. Jinheung Art Hall.]
- ____ (2010).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 미술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5(3), 기독교학문연구회.
- [____ (2010). A study on Korean Contemporary Logos-ism Art. *Faith and Scholarship*, 15(3).]
- 이연호 (1993). 한국 기독교 미술의 토착화. **통합연구**, 18호, 139-200.
- [Lee, Y. H. (1993). Inculturation of Korean Christian Art. *The Journal of Joins*, 18, 139-200.]
- 이은주 (2007). 말씀의 체현으로서 오의석의 조각 이미지 연구. **통합연구**, 19(2), 110-127.
- [Lee, E. J. (2007). Research on the Sculptured Images of Isaac Oh as Embodiments of the Logos. *The Journal of Joins*, 19(2), 110-127.]
- 임성빈 (2004). **21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신대학교출판부.
- [Lim, S. B.(2004). *21st Century Culture and Christianity*. Seoul: Jangshin University Press.]
- 차정식 (2012).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 [Cha, J. S. (2012). *Jesus, Answer of Korean Society*. New wave plus Press.]
- 최태연(2007). **한국의 전통미술과 기독교미술. 한국 기독교미술의 흐름 Pro Rege II**.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Choi, T. Y. (2007). *Korean Traditional Art and Christian Art.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_____ (2009).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기독교회화**. 창조질서의 재발견 Pro Rege 2009.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Choi, T. Y.(2009). *Contemporary Postmodern Painting. Recovery of Creation Order.*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006). **Pro Rege-영광스런 극장 안에서**. 서울: 예서원.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2006). *Pro Rege-In Glorious Theater.* Yeseowon.]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2015),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서울: 예서원.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2015).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Yeseowon.]

한정희 (2015). **아시아의 현대 기독교미술 : 인도,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Han, J. H. (2015). *Contemporary Christian Art in Asia: With a focus on India, Chinese and Japan, 50 Years of Korean Christian Art.* Korean Christian Artist Association.]

최태만. '장막을 걷어라. 너의 마음으로...'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bezalell/221610786321> (검색일 2019. 11. 29)

논문초록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 연구
- ‘통일과 평화’ 주제를 중심으로 -

오의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현실 인식과 조형적 체현의 실천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오늘의 기독교 미술이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서 미술로서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무, 그 실천적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기독교세계관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조망하고 표현하는 작가와 작품들 가운데 통일과 평화의 주제를 다루는 작가와 작품세계를 고찰하였다. 정리된 문헌자료와 전시 감상, 답사와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고 작품들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설치와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허진권 작가, 최근 ‘부드러운 장벽’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진 조각가 이용배의 설치작품, 분단의 상징으로서 철조망의 형상과 오브제를 활용한 연구자의 작품 연작, 노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전쟁의 기억과 이미지를 그린 김복동의 회화 작품, 통일 비전캠프에 복음의 의미와 정신을 체현하여 설치한 한 심정아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작가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성장기 환경이나 가정사의 배경, 또는 개인적인 고난의 경험 속에서 복음이 갖는 화해와 통일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작품 속에 체현하여 실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기독교 작가의 작품들은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지평을 특정한 종교적 주제에 매이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해 조망하는 미술로 확장한다.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미술의 영역에 조형적으로 체현함으로써 기독교 미술의 사회 변혁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작품들은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실천적인 현대 기독교미술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며 영향력 있는 대안으로 지속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기독교 미술, 체현, 현실 인식, 통일, 평화